

2024년 4월 28일. 28 April 2024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6. 그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Then one of the seraphim flew to me, having in his hand a burning coal that he had taken with tongs from the altar.
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And he touched my mouth and said: "Behold, this has touched your lips; your guilt is taken away, and your sin atoned for."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And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Then I said, "Here I am! Send me."
이사야 Isaiah 6:6-8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서 예언자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서 부르시오니, 주여, 저희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저희를 보내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부르심 받은 주님의 종들이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있사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높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곳에서 그러하거니와,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성호가 영원히 찬양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Rise, and Stand upon Your Feet!
사도행전 Acts 26:1-23

1.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So Agrippa said to Paul, "You have permission to speak for yourself." Then Paul stretched out his hand and made his defense:

2.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I consider myself fortunate that it is before you, King Agrippa, I am going to make my defense today against all the accusations of the Jews,

3.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especially because you are familiar with all the customs and controversies of the Jews. Therefore I beg you to listen to me patiently.

4.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하는 바라.

"My manner of life from my youth, spent from the beginning among my own nation and in Jerusalem, is known by all the Jews.

5.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They have known for a long time, if they are willing to testify, that according to the strictest party of our religion I have lived as a Pharisee.

6.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And now I stand here on trial because of my hope in the promise made by God to our fathers,

7. 이 약속은 우리 열 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to which our twelve tribes hope to attain, as they earnestly worship night and day. And for this hope I am accused by Jews, O king!

8.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Why is it thought incredible by any of you that God raises the dead?

9.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I myself was convinced that I ought to do many things in opposing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10.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And I did so in Jerusalem. I not only locked up many of the saints in prison after receiving authority from the chief priests, but when they were put to death I cast my vote against them.

11.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And I punished them often in all the synagogues and tried to make them blaspheme, and in raging fury against them I persecuted them even to foreign cities.

Paul Tells of His Conversion

12.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In this connection I journeyed to Damascus with the authority and commission of the chief priests.

13.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At midday, O king, I saw on the way a light from heaven, brighter than the sun, that shone around me and those who journeyed with me.

14.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And when we had all fallen to the ground, I heard a voice saying to me in the Hebrew language,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It is hard for you to kick against the goads.'

15.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And I said, 'Who are you, Lord?' And the Lord sai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But rise and stand upon your feet, for I have appeared to you for this purpose, to appoint you as a servant and witness to the things in which you have seen me and to those in which I will appear to you,

17.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delivering you from your people and from the Gentiles—to whom I am sending you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to open their eyes, so that they may turn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the power of Satan to God,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a place among those who are sanctified by faith in me.'

19.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Therefore, O King Agrippa, I was not disobedient to the heavenly vision,

20.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but declared first to those in Damascus, then in Jerusalem and throughout all the region of Judea, and also to the Gentiles, that they should repent and turn to God, performing deeds in keeping with their repentance.

21.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For this reason the Jews seized me in the temple and tried to kill me.

22.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To this day I have had the help that comes from God, and so I stand here testifying both to small and great, saying nothing but what the prophets and Moses said would come to pass:

23.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that the Christ must suffer and that, by being the first to rise from the dead, he would proclaim light both to our people and to the Gentiles.”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 실시한 제5차 변명, 곧 마지막 변명입니다.

오늘 현장은 가시사라입니다. 유대 총독 베스도가 주도했고, 아그립바 왕이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제1-5차 변명 내내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특히 마지막 변명인 오늘 본문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증거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부르심에서 나고, 부르심에는 순종이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쓰러진 바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길로 바울을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의 길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증인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어서 발로 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합니다.

1.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So Agrippa said to Paul, “You have permission to speak for yourself.” Then Paul stretched out his hand and made his defense:

바울의 마지막 청문회는 아그립바가 주도합니다. 그는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변명을 듣고 파악하여, “죄목을 결정”하는 일이 그와 동석한 재판관들의 몫입니다.

바울이 변명을 시작합니다. 그는 손을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2.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I consider myself fortunate that it is before you, King Agrippa, I am going to make my defense today against all the accusations of the Jews,

바울은 그가 다행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고발한 모든 일에 대하여 1. 오늘, 2.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3.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especially because you are familiar with all the customs and controversies of the Jews. Therefore I beg you to listen to me patiently.

바울은 아그립바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실, 아그립바는 헤롯대왕의 손자로서, “이두매인”입니다. 유대인과는 비교적 가까이 지낸 일로, 유대인의 풍속과 종교적인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그립바의 너그러움에 호소합니다.

4.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하는 바라.

"My manner of life from my youth, spent from the beginning among my own nation and in Jerusalem, is known by all the Jews.

바울은 그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든 유대인이 다 아는 점을 들어 말합니다.

5.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They have known for a long time, if they are willing to testify, that according to the strictest party of our religion I have lived as a Pharisee.

유대인들은 바울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한 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6.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And now I stand here on trial because of my hope in the promise made by God to our fathers,

그런데 그가 이 자리에 서서 심문을 받는 까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조상!

7.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to which our twelve tribes hope to attain, as they earnestly worship night and day. And for this hope I am accused by Jews, O king!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오랜 세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소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8.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Why is it thought incredible by any of you that God raises the dead?

이제 바울은 아그립바를 포함하여 유대인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음을 믿지 못합니까?

9.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I myself was convinced that I ought to do many things in opposing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나도 지금 여러분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결심을 했습니다.

10.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And I did so in Jerusalem. I not only locked up many of the saints in prison after receiving authority from the chief priests, but when they were put to death I cast my vote against them.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일 때 찬성을 투표했습니다.

여기서 스테반 순교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1.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And I punished them often in all the synagogues and tried to make them blaspheme, and in raging fury against them I persecuted them even to foreign cities.

또 모든 회당에서 실시한 박해 일을 언급합니다.

1. 회당에서 벌을 줄 때, 내가 앞장섰습니다.
2. 억지로 그들이 신성모독하도록 했습니다.
3.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여,
4. 외국 도시에까지 나가서 박해했습니다.

12.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In this connection I journeyed to Damascus with the authority and commission of the chief priests.

이제부터 바울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증거합니다.

급기야는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13.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At midday, O king, I saw on the way a light from heaven, brighter than the sun, that shone around me and those who journeyed with me.

그런데, 왕이여, 보십시오. 때는 정오였습니다. 나는 길에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나와 내 동행들을.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뵈는 것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The True Light, which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요한복음 John 1:9

14.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And when we had all fallen to the ground, I heard a voice saying to me in the Hebrew language,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It is hard for you to kick against the goads.'

우리는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방언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아람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kentron, the goads)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막대기에 날카로운 장치를 해서 동물을 몰아갈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목자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울에게 고생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행위가 그에게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시채는 사사 중에 삼갈이 손에 들고 600명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After him (Ehud), was Shamgar the son of Anath, who killed 600 of the Philistines with an exgoad, and he also waved Israel.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Judges 3:31

네게 고생이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모든 자들" 중에 당연히 "바울" 자신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바로 이 메시지가, "너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가 문득 자기가 그 구원에 포함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15.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And I said, 'Who are you, Lord?' And the Lord sai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상대를 "주님"으로 부르게 된 동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다고?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주님 아니신가??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에고 에이미! I Am!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정도의 사건입니다.

에흐예 아셀 에흐예!
I Am that I Am!
출애굽기 Exodus 3:14b

1. 구원의 명령(클레임)이다.
2. 너를 포함하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리즌).
3. 이 명령을 선포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워런트).

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But rise and stand upon your feet, for I have appeared to you for this purpose, to appoint you as a servant and witness to the things in which you have seen me and to those in which I will appear to you,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but rise and stand upon your feet!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서 났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핍박하는 바울을 벌하시는 대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구원하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
그를 위하여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이다!

무엇에 대한 종과 증인입니까?

1. 나를 본 일
2.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지금 당신을 계시하신 일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에게 나타나실 일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종이 되고, 증인이 되도록! 그런데 보세요. 그 전에 지금 바울은 일어나, 그의 발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토사구팽(兔死狗烹)! Killing the dog after hunting is over!

보통 목적(purpose)을 위해 사용하고 버리는 도구(instrument)에 대하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 토사구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바울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한 자 바울을 굳이 거기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에 여기서 바울은 채 알지도 못하는 그분께 대하여 “주님!”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주여!
My Lord!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혜가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복락, 천국소망을 주시려고.

주님을 거역한 지난날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오늘 구원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17.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delivering you from your people and from the Gentiles—to whom I am sending you

예수님께서서는 바울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손에서.

여기서 “구원하여”(to rescue, exaireo)는 출애굽 전형(typology)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증인들이 되게 하신 그대로!

그리고 바울을 그들에게 돌려보내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로!

여기 “이스라엘”은 특히 바울의 교회 박해를 지휘감독하고 지지하던 무리입니다. 그들도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는, “땅 위의 모든 민족”이 그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심이었습니다(창세기 12:1-3).

처음에는 원수들로부터 빼내시고, 다음에는 원수들에게 돌려보내시고! 여기 놀라운 구원과 사명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Who desires all people to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디모데전서 1 Timothy 2:4

이로써 바울은 지금 그를 재판하는 재판자들까지 하나님 구원에 포함되는 사실을 증거 하는 중입니다.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to open their eyes, so that they may turn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the power of Satan to God,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a place among those who are sanctified by faith in me.'

바울의 사역으로써, 1. 그들이 눈을 뜨게 하시고, 2.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3.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4. 죄사함을 얻고 5.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명을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19.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Therefore, O King Agrippa, I was not disobedient to the heavenly vision,

아그립바 왕이여!

이제 하늘로부터 보여주신 것을 내가 더 이상 거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당신이라도 그럴 수 있습니까?

20.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but declared first to those in Damascus, then in Jerusalem and throughout all the
region of Judea, and also to the Gentiles, that they should repent and turn to God,
performing deeds in keeping with their repentance.

나의 선교사명이 이렇습니다.

1. 회개하여
2. 하나님께로 돌아와
3.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가 증거하는 대상은 먼저 1. 다메섹부터 시작했습니다. 2. 예루살렘에서 했고, 그리고 3.
유대 온 땅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4. 이방인에게까지.

21.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For this reason the Jews seized me in the temple and tried to kill me.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내가 유대인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22.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To this day I have had the help that comes from God, and so I stand here testifying
both to small and great, saying nothing but what the prophets and Moses said would
come to pass: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일으켜 세우신 그대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므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했던 그것 외에 달리 없습니다.

곧,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23.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that the Christ must suffer and that, by being the first to rise from the dead, he would proclaim light both to our people and to the Gentiles."

그리스도께서 1.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2.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 3.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사울로 불리던 시절, 그는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스도인을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께서 부르시고 파송하셔서, 마침내 주님의 "종"과 "증인"이 되었습니다.

문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더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나갔던 바울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데까지 이르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막아 서셨을 때, 당시 사울로 불렸던 바울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온 세상에 복음 증거자로 파송하셨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

교회 박해자 사울은 그 부르심 안에서 전도자 바울로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부르심을 거역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처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다.

사람은 일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자리"(직업, 직장, 지위)가 그 사람됨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은혜롭고 귀한 것은, 그가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게도 소중한 것은, 거기 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선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일을 하고도 버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On that day many will say to me,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cast out demons in your name, and do many mighty works in your name?' And then will I declare 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orkers of lawlessness.'

마태복음 Matthew 7:22-23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아닙니다. 모든 사역은 replace, 곧 대체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 구원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강건실 장로님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분이 준비 완료한 사역내용보다는 그분의 영혼을 더 필요로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복음전파에 있어, 반드시 파송하시는 자를 포함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I am with you to deliver you, declares the LORD. 예레미야 Jeremiah 1:8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They will fight against you, but they shall not prevail against you, for I am with you, declares the LORD, to deliver you.

예레미야 Jeremiah 1:19

복음전도자가 자기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But I discipline my body and keep it under control, lest after preaching to others I myself should be disqualified.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9:27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구원이 먼저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가르치실 때, 모두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 받은 자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설마 나를 부르실까?"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것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Jerusalem, Jerusalem! The city that kills the prophets and stones those who are sent to it! How often would I have gathered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 her brood under her wings, and you were not willing!

누가복음 Luke 13:34

바울과 대부분 유대인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내 거역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대낮의 햇볕보다 더 빛나는 광선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육신에 집착하고 매달려, 주님의 음성을 거역합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그 앞에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음성은 온 세상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슴에 생생합니다. 되는 일이 없고, 풀리는 일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날마다 계속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는 벼락 치는 소리나, 천둥, 혹은 지진이나 화염소리가 아닙니다. 고요하게 들리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 참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사도행전 Acts 26:14c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하는 일의 그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뉘에는 잘하노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주님을 박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오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7 Therefore, as the Holy Spirit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8 do not harden your hearts as in the rebellion, on the day of testing in the wilderness,
9 where your fathers put me to the test and saw my works for forty years.
10 Therefore I was provoked with that generation, and said, 'They always go astray in their heart; they have not known my ways.'
11 As I swore in my wrath, 'They shall not enter my rest.'"
히브리서 Hebrews 3:7-11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열조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므로써 참된 안식을 얻은 자들입니다.

바울의 변화와, 그에 따른 확신의 삶은,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생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담대한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부르심대로 응답하고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부르사, 당신의 피로써 죄를 사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성도들입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뒤를 따르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